

# 주거복지·산단조성...시민 삶의 질 높이는 광주건설

## 창사 29주년 맞은 광주도시공사

올해로 창사 29주년을 맞은 광주도시공사가 도시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공공시설 관리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역경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는 핵심 공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에서 전역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최근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전략을 발빠르게 도입하고 신재생 에너지사업,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해 ESG 경영대상 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도 냈다.

◇도시개발사업 주력...광주산업경제 성장 기반 마련=1993년 9월 1일 창립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9년동안 상무지구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등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광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의 미래 산업경제를 이끌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등 광주 산업경제를 리딩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들 3개 산업단지가 모두 조성되고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 15조 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 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무주택 서민 대상 안정된 주거여건 제공=도시공사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맞춤형 매입·전세 임대

상무지구·공동혁신도시·광주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지역발전 주도

고품질 임대·누구나 집 등 공공임대주택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공공시설 운영 고객만족도 전국 1위·장관상 등 명품 공기업 인증

등 9000여세대의 다양하고 저렴한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전국 최초로 광주시, LH와의 협업을 통해 종합주거복지센터도 개소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3500세대 대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는 등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 같은 주거복지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주거복지 대통령상 수상, 지방공기업의 날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도 냈다.

◇공공임대주택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도시공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하면 떠올랐던 비좁고 낙후한 이미지를 탈어내기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도시공사는 우선 시범지구인 상무지구를 시작으로 기존 전용 60㎡ 이하로 공급되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을 85㎡까지 확대하고, 총 460세대의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지원이 주목적이었던,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 계층을 넓혀 무주택 서민이라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주택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는 1차 공급이 마무리되면, 첨단 3지구에 2단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 에너지밸리 내에 건립 예정인 '누구나집'도 대표적 미래형 주거안정대책 중 하나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간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 예정이다. 임대종료 후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며, 개발이익은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잇따른 수상·혁신하는 지역 대표 공기업 우뚝=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ESG 경영 전략을 공사에 도입한 결과, 최근 정부 11개 기관이 주관한 ESG경영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시민 서비스품질은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CS교육, CS과제발굴, 고객센터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진행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평가에서도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20년에 재난안전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재난안전실을 신설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정착으로 '중대재해 안전사고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ZERO화'를 달성하는 성과 등을 냈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근 사장은 "지난 29년 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1회 경연대회 신청하세요”

광주소방 16일까지 접수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6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1회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 건물에서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 능력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참가 분야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총 3개다.

참가 희망자는 16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이달 중 광주시 자체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분야별 1위는 광주 지역 대표로 소방청 주관 전국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청장상, 한국소방안전원상 등 상장과 총 1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관서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방안전본부 이남수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실효성 있는 소방계획서를 발급하겠다”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미등록 반려견 단속 나선다

### 광주시·구 합동단속반 구성 30일까지...적발땀 과태료

광주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미등록 반려견 대상 '동물등록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정보 및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 및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면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했다.

시는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할 경우 5000마리 한도 내에서 1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내 반려동물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590마리가 추가 등록돼 총 6만8708마리에 이른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만큼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인으로서 책임감을 키우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전통시장 장보기 광주환경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박재우) 임직원들은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 광주 축구 전용구장 화장실 3곳·매점 2곳 신설

광주시는 “시비 13억원을 투입해 축구 전용구장에 건물형 화장실 3곳, 매점 2곳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화장실, 매점이 간이시설을 유지하면서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경기장 시설 기준에 적합한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화장실은 다음 달 3일 광주FC 홈경기부터, 매점은 내부 단장을

거쳐 10월 9일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축구 전용구장은 서구 풍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부지에 164억원을 들여 2020년 건립됐다. 관람석 1만석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59㎡로 선수 숙소 건물동, 선수 대기실, 방송실 등을 갖췄다. /박진표 기자 lucky@

## 여름철 환경오염 단속

### 광주 14개 사업장 적발

13곳 형사처분·1곳 과태료

광주시는 “여름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에 1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13곳을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북구 A 사업장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고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으며, 광산구 B 사업장은 공공주택 도색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부터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수역 환경오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었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기회도시 광주가 건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